

북한개발소식

03

2020 March

통권 173호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주민사회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선교적 고찰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March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주민사회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선교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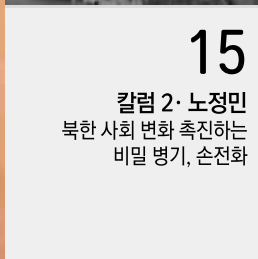
01

권두칼럼
북한의 주민사회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선교적 고찰



10

칼럼 1· 정은찬
시장, 북한주민의
경제-문화변화를 선도하다!



15

칼럼 2· 노정민
북한 사회 변화 촉진하는
비밀 병기, 손전화



20

칼럼 3· 강미진
북한의 대중교통 변화와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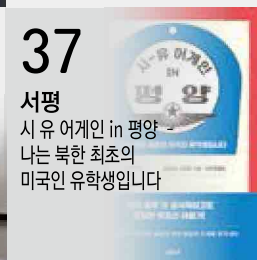
26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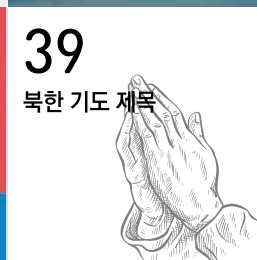
31

북한 뉴스



37

서평
시 유 어게인 in 평양
나는 북한 최초의
미국인 유학생입니다



39

북한 기도 제목



북한의 주민사회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선교적 고찰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선교적 관점에서 북한 사회의 동향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많은 제약과 위협이 도사리는 북한이기에 창의적인 접근을 위한 고민과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2000년대 이후로 북한은 장마당의 발달을 중심으로 교통과 통신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고 근래의 북한 사회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적인 정치, 군사, 외교적인 이슈들에 비해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오래전 정보와 최근 정보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지역적 차이도 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이슈들도 점점 늘어나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 최근 상황에 집중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교통, 통신 분야에서 변화하는 북

한의 양상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간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새로운 통신 문화

근래 북한 관영매체들의 보도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손전화 즉 휴대폰 사용 매너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조선중앙TV는 “자극적인 벨소리를 피하고 고상한 호출음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고, 노동신문에서는 프랑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스마트폰 사용금지 소식을 전하면서 손전화기 사용 관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¹ 이러한 관영매체의 보도는 북한 내에 손전화기 사용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그릴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휴대폰 보급 대수는 18-19년도 기

1 이영중, “왜케 시끄럽네? 손으로 가리고 통화하라워!”, 시사저널 온라인, 2018.12.24



〈북한 조선중앙TV는 2011년 9월7일 《공중도덕과 우리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손전화기'(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시사저널)〉

준으로 약 600만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요금제 등의 문제로 여러 대의 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실사용자수는 등록대수보다는 적은 450만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² 450만이라는 숫자는 북한 인구를 2500만으로 볼 때 약 18% 수준으로서 대략 10명중 2명 정도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나 노년층의 휴대폰 사용 비율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연령대의 휴대폰 사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국민통일방송에서는 탈북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북한 내 미디어 사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의

66%인 132명이 손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손전화를 소유했다는 응답이 92명(46%), 공짜로 빌렸다 27명(13.5%), 사용할 때마다 돈을 지불했다 14명(7%) 순이었다.³ 조사 대상 탈북자의 연령 분포가 주로 청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청장년층의 경우 전체 비율보다 높은 약 30-40% 정도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유추해볼 수 있다.

북한의 무선통신 보급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 2G 이동통신이 고위간부나 북한 주재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잠시 서비스되기도 했지만 2004년 전격 중단되었

2 VOA, "[특파원 리포트] "북한 휴대폰, 보급 대수와 사용자 수 구분해야", VOA, 2019.01.28,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4761619>

3 통일미디어, 「2019 북한 미디어환경과 외부콘텐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p. 23.

는데, 같은 해에 일어났던 용천역 열차폭발사고에 휴대폰이 기폭장치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⁴ 그로부터 4여년이 지난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코이 참여한 고려링크가 3G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특정 계층만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금은 고려링크 외에도 강성네트와 별 등 3개사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외에도 국경지대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사에 유용하고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과의 연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유선 전화의 경우 선로 가설 및 기존 선로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서비스는 많은 제약이 있다. 국제전화 연결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내부 음성통화만 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접속도 인터넷이 아닌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국한된다. 또한 통신 내용에 대한 도감청 등 주민들의 통신 관련 일탈 행위를 차단, 단속하려는 노력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무선 통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교통 발달과 주민 생활 변화

북한의 대중교통으로는 흔히 철도를 떠올린

다. 북한의 철도는 2013년 기준으로 약 5,300km이며 여객수송의 약 60%, 화물수송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에서 철도는 국가 기간 교통 수단으로의 역할을 했다.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의 자연환경에서 철도의 효율이 도로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철도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평균 시속 15km 내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열악함 때문이다.⁵ 북한의 철도는 80%가 전철화 구간인데 전력사정이 워낙 좋지 못해 운행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를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한 것은 도로 교통이다. 1980년대까지 북한의 도로로는 주요 철도역이나 항구 등을 잇는 연결 교통 및 보조 수송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즉 철도나 수운(水運)망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다 보니 도로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했다.

그러나 장마당이 생계의 장으로 부상하면서 전력난으로 이용이 어려운 철도 교통을 대신할 도로 교통 수단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써비차는 돈을 받고 화물이나 여객을 수송해주는 화물차량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개인은 화물 차량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소나 군부대에 자기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사용하거나, 일부 기업소나 군부대는 자체 차량을 민간부문에 비용을 받고 대여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제는 민간인이 돈

4 고경민, “북한의 이동통신 발전과 ICT4D” 제 13차 한국평화연구학회 중경국제학술대회(2016), pp. 123-124.

5 안병민,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서울: 통일교육원, 2014, pp.14-22.



〈2013년 기준 평성의 시외버스 노선 (“김정은 2년, 북한은”, KBS 파노라마, 2014년 2월 14일 방송 캡처)〉

을 투자해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기관, 기업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고 자신들이 영업을 해서 기관, 기업소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북한의 도로교통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외버스가 등장했으며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KBS 다큐 보도에 따르면 7년 전인 2013년 말 기준으로 평성버스터미널에서 운영되는 시외버스 노선이 이미 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전국의 주요 대도시뿐 아니라 일부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하는 수준인데 현재는 더욱 노선이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외버스는 실제로는 민간자본이 철저히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명목상으로는 각 시도의 운수사업소나 자동차 사업소 소속으로 지방정부가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최근 떠오르는 교통수단은 택시이다. 북한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평양에서 운행되는 택시 대수에 대해 2016년 3월 기준 1,500대라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있고⁷, 박영자 외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평양에는 택시가 약 6,000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은 1km당 0.5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게다가 이제는 평양을 넘어 지방에까지 택시가 등장하고 일종의 ‘콜택시’ 형태로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택시 역시 공식적으로는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지만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다.

김정은 시대 북한 시장

앞서 살펴본 교통과 통신의 발달 배경에는 장마당의 성장, 즉 북한의 시장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배급을 통해 주민 생계가 유지되고, 각 기업소나 기관들도 국가에서 배정해준 일감과 자원을 바탕으로

7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859, 서울: 산업연구원, 2017, p.116.

8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KINU 정책연구시리즈 18-01,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129.

6 “김정은 2년, 북한은”, KBS 파노라마, 2014년 2월 14일 방송.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자나 사람의 이동이 경제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았다. 거기에 당국의 정책에 따라 일반 주민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 통제되다 보니 지역간 교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런 환경에서 교통과 통신의 역할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 대신 장마당이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간이 되었다. 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물자와 인력의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적절한 연락대책 역시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열차 중심 교통망이나 유선전화 시스템은 노후화되거나 제대로 운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로 인해 교통 영역에서는 써비차를 비롯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도로 기반 교통, 물류 시스템이 등장하였고, 무선 통신 서비스도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다. 경제난 속에 불가피하게 등장한 장마당의 발달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촉진시킨 것이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당국의 대응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교통의 발달은 ‘이동의 자유’ 허용 정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거주지, 군 범위를 제외한 이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동을 하려면 ‘출장증명서’나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약간의 뇌물만 주면 증명서 없이 이동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북한 당국도 초기에는 각종 운송수단의 등장에 ‘불법이지만 주민 생활을 위해 일부 눈감아주는’ 식으로 통제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실상 이러한 운송수단의 운영을 승인하는 대신 국가 납부금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통신 부분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합자형식으로 설립하고 서비스하였는데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내적으로 이러한 통신 서비스의 필요가 높아졌고 이에 대해 당국이 자연스럽게 대응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 변화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필연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국의 경제적인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거기에 장세 부과로 세수를 확충하고 있고 산하 각급 기업소와 기관들 역시 시장에서 자원 조달 및 8.3 노동자를 통한 자원 확보 등 시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업도 기본적으로 국가와 각급 기업소, 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가와 각급 기관의 시장 의존을 생각해볼 때 북한의 시장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은 앞으로도 중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변화의 양상과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동과 통신의 자유가 주어지는 현상은 예사롭지 않다. 먼저 이러한 변화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오히려 당국도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국가의 개입이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은 북한 경제의 한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북한사회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북한 내 정보 유통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북한 사회 구조 틀도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역자립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통제속에 각 주민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등록된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고, 배정된 직장에서 일하면서 국가의 배급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자기 거주지 밖에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간간히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 듣는 소식 외에는 국가의 공식적 보도나 발표가 주요 정보원일 수밖에 없었다. 시장화 초기까지도 기존 원칙과 교통과 통신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변화는 드라마틱하다. 전국적으로 사백개가 넘는 허가된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을 통한 비공식 경제활동이 주요 생계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충격은 자연스럽게 경제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만 아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다. 이제는 북한 밖 소식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북한 내에 중국과 남한 미디어가 상당량이 반입, 유통되고 있다는,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요즘은 외부 소식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자신들의 사업과 생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통일미디어 보고서의 전 무역일꾼 탈북민 인터뷰에 따르면 평양 사람들은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외부의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청취한다고 증언했다. 북한을 둘러싼 제재 변화나 대외 환경 변

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만 손해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⁹ 또한 휴대폰의 보급은 이러한 정보가 지역을 넘어 전달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민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내 휴대폰 보급으로 물건이 저렴한 지역에서 사서 다른 곳에서 비싸게 파는 식의 장사가 어려워질 정도로 정보가 빨리 공유되고 있으며, 이동간 단속 등의 정보도 공유되는 등 통제망도 약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¹⁰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며 그간 많이 논의되었던 시장화를 통한 북한 사회의 변혁 가능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화는 사회변혁이나 체제전환의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시장 확산은 주민들이 국가의 보호막을 벗어나 각자 생존을 강구하는 삶의 방식이 강화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국가의 통제에서 점차 벗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탈 속에 주민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불만, 또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생겨나고, 사회변혁 혹은 체제전환을 촉발하는 사회적 역량을 축적하게 된다. 특히 국가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은 계획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붕괴 과정에서 시장의 확산이 체제비판과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시장화의 진전에도

9 통일미디어, pp.49-50.

10 통일미디어, p.46.

(단위 %)

설문 문항	매우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다른 사람의 밭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사람	16.5	35.0	45.9	49.4
개인이 하는 고깃배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37.6	53.1	34.9	26.9
개인이 하는 국수 생산기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40.4	44.4	24.8	43.1
화물차에 실을 짐을 날라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	45.0	68.1	43.1	27.5
(상업)관리소에 적을 걸고 집에서 하는 식당의 종업원	17.4	28.8	28.4	49.4
개인이 하는 편의봉사시설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18.3	30.6	51.4	50.0

〈북한의 사적 고용 수준.¹¹ 비공식 고용과 노동시장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불구하고 체제의 변화 움직임을 찾기 어려웠다. 국가의 강력한 감시와 통제가 큰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한계도 있었다. 김병로는 지역별 자력갱생을 추구하는 북한의 통제방식이 시장화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¹² 각 지역 내 시장화 효과가 지역단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간 교역과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도로 교통, 이동과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경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러한 제약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김홍광 NK지식인 연대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시장화 특징 중 하나로 전국시장화를 꼽았다. 한 예로 2009년 이전까지 남부지역은 곡물 가격이 저렴하고, 북부지역은 공산품 가격이 저렴한 특징

을 보였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 이런 특징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¹³ 노동시장의 경우도 아직은 초보적 형태이지만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보급으로 사전 구축된 연락망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쉽게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면서 노동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모양세이다.¹⁴ 북한 사회의 점진적이지만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변화상에 대한 선교적 고찰

근래 들어서 북한선교현장의 상황은 계속해서 위축되어왔다. 북한의 강경한 국경 통제와 중국의 단속 강화 및 선교사 추방과 현지 교회 박해 등으로 북한 선교의 기반이 축소되는 모양세이다. 특히 월경자들을 대상으로는 대상자 자체도 감소했을 뿐 아니라 선교 사역을 진

11 양문수 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 20권 2호(2016), pp. 69-74.

12 김병로,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2012).

13 김홍광, “시장화진전과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자유경제원 통일정책토론회 자료집 (2015.11.11.), p. 6.

14 박영자 외, pp. 109-110.

행했어도 월경자의 다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후 연락조차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사역의 성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고와 헌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거나 철수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내부는 점차 복음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전에도 북한의 시장화는 고난의 행군 이후 중국으로 식량을 찾아 넘어온 다수의 탈북자들의 귀환과 맞물려 복음 전파의 한 통로로 작용했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각종 외부 미디어 틈에서 신앙 관련 미디어와 자료도 함께 유입되었다. 적극적인 대북 라디오 선교 방송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비밀리에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정보 유입과 전파가 더욱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복음의 기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고 통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 속에 있지만 시장화가 강화

되는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나 신앙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날려보내는 식의 활동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인적, 물적 교류 속에 의외로 이러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넓게 전파되고 진지하게 받아드리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미디어 소비 행태를 볼 때 오락과 정보제공에 비해 종교적인 내용은 관심이나 흥미도가 떨어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북한의 상황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시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북한 내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중요성이다. 공산화 이전 복음의 뿌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숨어있는 신자들이나 고난의 행군시기를 통해 복음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다수의 탈북자까지 여러 선교사들의

피땀어린 수고를 통해 북한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그 중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 복음과 관련된 미디어나 자료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믿음이 약해졌던




〈중국교회의 예배를 감시하고 있는 중국 경찰 (2018.03.22) (Christian Post/ITV NEWS/ Youtube 캡처)〉

사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앞서 살펴본 발달하는 교류망속에 더욱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자료를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도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북한 내지로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촉가능한 국경을 왕래하는 방문자나 월경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통해 복음 전도뿐 아니라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경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근래 주변국의 선교사 추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지만, 월경자 수의 감소와 환경 악화로 인한사역 중단, 철수 사례 역시 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북한의 영혼의 귀중함을 생각할 때 현장에서 숫자적인 접근과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꾸준하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파송 단체나 후원 교회가 선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역 간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이들을 사역적 관점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한 보배와 같이 소중히 대해야 한다. 북한 성도들은 그 자체로 귀중한 그 땅의 소망이다. 북한 내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나 실적을 위해 소위 무대포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기존 성도들이 안

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북한 내 복음 전파는 오롯이 하나님의 주관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복음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이면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당장은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는 환경을 제대로 선교를 위해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드라마틱한 사역의 확대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음의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만났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고 교회의 중심지였던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잘 닦인 로마의 교통망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소아시아와 유럽지역으로 전개되었다. 심각한 박해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비하신 때와 환경을 통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문도 그렇게 열릴 것이고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를 위하여 일어날 것이다.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기와 인내 속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시장, 북한주민의 경제-문화변화를 선도하다!

정은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1. 시작하며

시장은 상품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상품으로서의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일정한 공간을 가진 장소이기도 하고,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재래시장, 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시장을 수시로 접하며 구매자로, 때로는 생산자, 혹은 중개자로 시장에 참여하며 살아간다. 시장은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영역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았으며, 시장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맺게 된다.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사람, 재화, 자본이 공존하고 정보와 문화가 공유되는 시장,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작동(계획 하달→생산→분배→교환→소비)으로 국가공급이 이루어지고 주민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특징을 내재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생산부문 침체, 이로 인한 국가공급 단절이 지속되어 북한주민의 삶은 자립적 생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노력으로 암시장이 확산되었고, 이를 계획경제하에 수용하기로 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2003년 3월부터 상설시장 운영이 현실화되었다.

북한에서 공식 운영되고 있는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이는 생산재시장인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과 수입물자시장, 소비재시장인 지역별 종합시장을 포함한다. 지역별 종합시장은 약 5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공식 운영되는 시장에는 생산요소시장인 자본, 노동, 토지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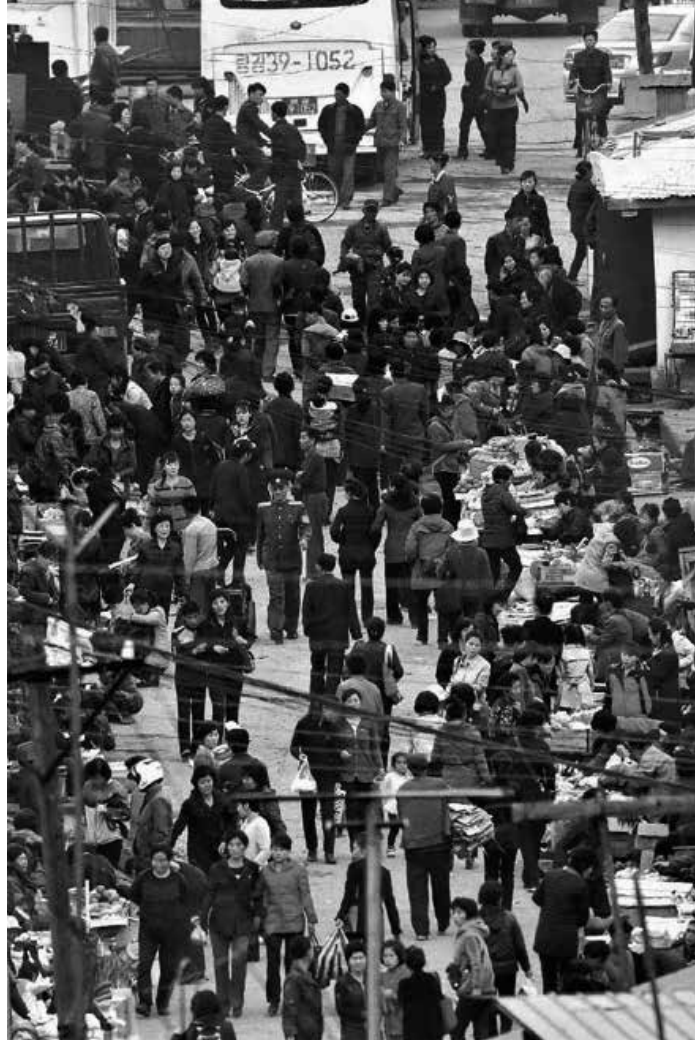
시장이 공식 도입되었던 2000년대 초반까

지만 하여도 북한의 시장은 사람, 재화, 자본이 공존하는 경제적 공간으로의 기능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은 북한주민의 자립적 삶의 현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재화와 자본이 유통되는 공간을 넘어 외부정보와 문화교류가 가능한 주민 사회변화 촉진 매개체로 거듭났다. 시장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경제적인 관계, 문화적인 관계를 맺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 북한의 시장 유형과 거래주체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 및 변천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왔다. 1단계는 북한당국의 규제 하에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던 농민시장, 2단계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자립적 생존을 위한 주민 노력에 의해 확산된 자생적 암시장, 3단계는 2003년 상설시장 운영을 공식 도입하기로 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전국 각지에 개설된 종합시장(소비재 유통을 목적으로 한 공설시장)이다. 농민시장은 10일에 1회 개장하여 텃밭에서 생산한 농토산물을 매매(대량 매매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과도기적 특징을 반영한 시장이었다. 이러한 농민시장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국가공급이 중단되고 주민 스스로 자립적 생존을 해야 했던 시기에 암거래 장터로 거듭났고, 거래주체간 경제관계가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경제 영역에서 확대되는 공간이 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공식시장과 비공식시장으로 분류된다. 공식시장으로는 생산재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과 소비재시장인 종합시장이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이 손님과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동아일보, 다큐사진가 조천현)〉

있다. 하나는 공장기업소의 물자(원자재, 중간재, 완성재)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주민 경제생활 유지를 위한 장터(marketplace)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생산재시장은 물자교류를 목적으로 한 시장형태로서 원칙상 공장기업소, 국가, 해외무역기관이 거래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상인 및 개인 돈주(신흥부자)도 거래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소비재시장은 대부분 북한주민들로 구성된 개인상인들이 거래주체가 되고 있으며,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에는 빈부격차가 양산되면서 상인그룹별 거래주체도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



〈북한 소비자가 안전원의 검열을 기다리고 있다.(인터넷 캡처)〉

나라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하여 상행위 방식이 고급화되고 기능화되어 상품의 도매 → 유통 → 소매의 3단계 과정에서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이 보장된 구조(system)가 고착되고 있다. 즉 기존에는 해당 상인이 직접 상품의 도매, 운반 및 유통을 담당하였다면, 최근에는 전화로 상품유통과 관련된 지령(Order)만 내리고 실제 상품운송은 공장기업소의 수송과(운송 담당 부서) 혹은 철도의 수화물 담당자(개인), 개인으로 구성된 유통업 전문그룹 등과 결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주문, 유통, 자금 청구 및 결제 역시 해당 지역의 자금주(錢主)과의 연계 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에는 부(富)의 편중 현상이 빈부격차로 이어져 대규모 금융자산을 축적한 시장 세력에 의한 계층별 이동도 증대되고 있다. 개인 ⇨ 가족 범위를 벗어나 그룹별 ⇨ 분야별 상(商)업화된 장사가 성행하고 있으며, 개인수공업의 생산 ⇨ 판매가 협업화되고,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등)를 활용한 기능화, 구조화된 장사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서 비공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생산요소시장으로 지칭되는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 부동산시장이다. 현 북한에

서 암시장(Black market)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돈주에 의한 자본시장(고리대금업, 송금업, 공장기업소 자금 대부)과 임대노동시장(분업형태의 수공업 및 유통업에 채용),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매매시장(주택·소토지·매대)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공식시장은 공식시장 운영에 반사적 영향(자본투자를 통한 확산 효과)을 미치며 시장에서의 거래주체간 경제관계 형성 및 문화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3. 북한주민의 경제-문화관계 변화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의 자립적 생존은 소규모 장사, 소토지(화전)농사, 강타기(중국으로의 비법월경 밀수)등의 방식에 집중되었다. 이는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적인 노동생활, 그 결과로 받게 되는 근로소득, 국가공급에 의한 소비생활 유지 등의 경제난 이전의 생존방식과는 다른 패턴이다. 북한주민의 70~80%가 현재 시장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생활 패턴의 변화는 생활과 정에서 맺어지게 되는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제가 되고 직장동료와의 친분보다 시장에서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에 치중해야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장을 통한 북한주민의 자립 생존이 사회 전반에 고착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급규모의 상인(운송수단 활용)이 등장하고, 개인수공업자의 임노동 채용과 같은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다양한 생존방식이 더욱 보편화된 것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경제난 초기 배낭(Big backpack)장사로 시작하였던 소규모 상인들은 공장기업소의 운송수단(자동차)을 대여받아 장사하는 2~3인조 도매유통 전문그룹에 편입되기도 하고 권력층과 유착되어 거상으로 등극되기도 하였다. 특히 2003년 6월 북한당국의 시장(장마당) 쌀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식량을 비롯한 공산품(국가가 제한한 품목 제외) 매매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통한 북한주민의 사경제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이 과정에 형성되어 변화를 추구하는 경제관계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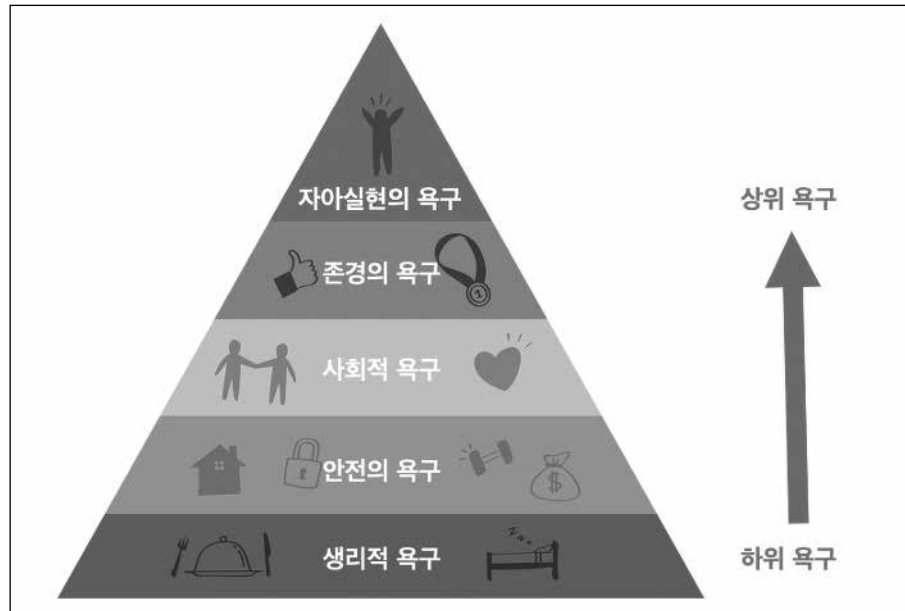
생존방식의 변화는 경제의식(체제의존에서 이탈하여 자립적으로 생존) 및 가치관(수령제일주의 가치관에서 개인, 가족, 돈 중심) 변화를 유인하고, 북한주민의 경제생활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자율적 판단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국가공급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북한주민들은 경

제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시장 확산 및 공식 운영을 견인하였고 개인의 경제적 가치관 및 경제적 관계 변화에서 주체가 되고 있다.

북한주민의 경제생활 방식이 국가공급 의존에서 자립적 생존방식으로 변화·고착되어 가는 과정은 곧 먹는 문제 해결이 급선무였던 북한주민의 생존욕구가 해결되어가는 과정과 직결된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주민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 및 선진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관계 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문화정보와 문화생활 향유의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의 현장으로 거듭났다.

북한의 전역에 개장되는 종합시장, 그 외의 암시장에서 북한주민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외부문물 및 외부정보를 접하기 위한 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이론에 따르면 하위 욕구가 만족되면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현된다.〉

거래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 개인간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행태 변화는 문화적 관계 변화를, 궁극적으로 문화의식 변화를 촉진한다. 외부정보와 외부문물을 접하면 외부세계와 북한에서의 생활 환경 비교가 가능해지고 이는 다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현재 북한의 시장은 바로 이러한 북한주민의 문화적 관계 변화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사조를 차단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음성적 방법에 의한 외부문물 유통, 외부정보의 공유, 선진문화를 수용하려는 북한주민 변화는 한국산 제품을 명품으로 선호하는 문화적 변화에서 이 과정에 맺게 되는 문화적 대인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난 이전 국가공급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유지했던 시기 북한주민 개인의 문화적 취향은 문화생활 영역에서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생활문화,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준수하며 집단주의 원칙을 지켜야 했던 당시 북한주민간 문화적 관계는 북한체제가 주문한 공적 영역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자립적 생존이 고착되면서 경제생활 자립능력에 따라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려는 개인의 의지가 높아졌고, 권력층과의 유착을 통해 강력한 통제범위에 포함된 남한드라마를 비롯한 외부문물을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4. 마치며

북한은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수령제일주의와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3위1체론(수령-당-대중의 통일체)에 기반한 사회주의 대가정론(아버지는 수령, 어머니는 당, 자녀는 대중)으로 지도자 중심의 주민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통제를 강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탈, 조직생활 기피, 외부문물 선호 등의 현상은 북한주민들 속에서 경제적 관계, 문화적 관계 변화를 촉진하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확산과 더불어 북한주민의 경제-문화적 관계의 변화는 시장에서의 거래주체간 변화, 시장을 활용하는 일반 주민들간 사회적 관계망 변화를 동반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 내 아래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경제사회적, 문화적 관계망 형성의 변화는 그 자체로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을 통한 북한주민의 자발적 관계 형성 및 변화는 북한체제에 의해 잘못 내면화된 북한주민 잠재의식이 외부세계와의 비교속에서 자발적으로 교정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형성의 변화는 북한주민의 성숙된 의식화 촉진 기제로 승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내재한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시장을 통한 북한 내 주민들간 경제적 관계 변화가 문화적 변화, 정치적 변화를 견인해갈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북한 사회 변화 촉진하는 비밀 병기, 손전화

노 정 민 (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 RFA> 기자)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린 북한 손전화

올해 1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에서 북한 취재를 위해 여러 차례 방북했던 서방 기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북한 현장 취재: 북한 내부 사진과 통찰력' (Assignment: North Korea - Images and Insights from inside the DPRK)이란 제목의 토론회는 기자들의 북한 취재 경험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로 '휴대폰', 즉 손전화 사용의 급증이 언급됐다. AFP통신의 에드 존스(Ed Jones) 수석 사진기자는 북한 주민이 손전화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게 됐고, 주민들끼리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도 2019년, 북한 내 손전화 사용 실태에 관한 심층취재를 위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여성과 직접 영상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이제 북한에서 손전화를 가질 사람은 다 가졌고, 젊은이들은 최신 전화기가 나올

때마다 바꾼다"고 말했다. 1천 달러 상당의 새 전화기도 스스로없이 구매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손전화 사용의 급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에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손전화 이용자가 최소 30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졌다는 편리함이 빠른 확산의 가장 큰 이유다. 교통과 정보의 공유가 발달하지 못한 북한에서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장사·무역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동력을 제공하면서 손전화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북한 당국이 전화기 판매, 이용료 등 북한 주민의 외화를 거둬들이는 목적으로 손전화 사업을 장려한 것도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손전화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다"는 북한 주민의 말에서 오늘날 손전화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북한 손전화, '연락수단'과 '경제활동'이 주목적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북한에서 손전화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

북한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이다. 북한 돈으로 한 달에 1천 원의 이용료를 내면 200분의 음성통화와 20개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손전화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려면 '체콤'이라는 손전화 봉사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요금도 비싸고 제약이 많다 보니 사용자가 많지 않다. 최근에는 장사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영상통화가 인기라고 한다. 1분에 70~80원으로 음성통화의 3~4배에 달하는 비싼 요금이지만, 영상으로 직접 물건을 볼 수 있으니 직접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손전화를 사용해 본 탈북자들에 따르면 손전화 사용의 가장 큰 목적은 주로 '연락수단'과 '경제활동'이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각지의 물가와 정세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멧을 부리거나 이성간 교제, 게임, 백과사전 검색을 위해 손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또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직 대중화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밖에도 손전화의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송금과 수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치 등 새로운 일감이 생겨나는 경제적 확장성도 보여주고 있다.

외부 정보 유입의 확산 매개체

필자가 중국 단둥에서 큰 인상을 받은 것은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 '평양2423'와 폰에 설치된 어플들. 폰 사양은 갤럭시 S4 수준의 성능으로 알려져있다.〉

중국에 있는 사람과 북한 주민이 손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든 것이다. 당시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북한 내부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물건을 부탁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은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음성으로 답도 해 줬는데, 심지어 주말에 부탁한 물건이 월요일에 도착하는가 하면, "배달이 늦어졌으니 나중에 찾아가라"는 음성문자도 곧바로 전해졌다. 실시간 의사소통을 지켜본 나로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간의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서 사용하는 손전화는 중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명 '중국 손전화'이다. 중국에서 개통해 북한에 전달해준 중국 손전화로 자유로운 연락이 가능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중국 손전화를 가진 북한 주민과 직접 통화하거나 메신저,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정보가 북한 안팎으로 유출·유입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중국 손전화'와 '북한 손전화'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전화기도 다르고, 이동통신 서비스도 다르다. 하지만 '중국 손전화'와 '북한 손전화'가 만나면서 폐쇄사회인 북한의 빗장은 더 활짝 열리게 됐다. 북한 손전화를 이용해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사회 현상, 북한 시장의 물가 등을 파악한 뒤 중국 전화기로 중국·한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반대로 외부정보가 '중국 손전화'와 '북한 손전화'를 거치면서 내부로 확산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손전화'가 정보 유입·공유·확산의 주요 매개체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북 당국, 손전화 단속 강화

이를 파악한 북한 당국은 체제 위기를 의식해 중국 손전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파 탐지기를 이용한 검열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중국 손전화에 관한 신호가 감지되는 집에 들이닥치기도 한다. 또 1,400km에 달하는 북·중 국경 지역에 방해전파도 내보내는데, 그만큼 중국 손전화를 이용한 정보 유통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오히려 강력한 단속을 피해 정보 교류를 더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USB를 통한 외부 정보를 볼 수 없게 해도, 이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밀히 거래하기도 한다. 막는 정책이 있다면 푸는 대책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와이파이 접속이 불가능한데, 외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평양 대동강구역에서 주변을 서성이다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주민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단속을 벌였는데, 억눌린 사회에서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손전화의 미래와 과제는?

최소 300만에서 최대 600만대까지 보급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손전화는

내부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대한 영향력을 증명했다. 북한 손전화가 다시 중국 손전화라는 외부 통로를 만났을 때 북한 사회와 일반 주민에 미치는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탈북자들의 한목소리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능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다 보니 음성 통화 위주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인터넷'의 개념조차 모르는 북한 주민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지만, 외부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초보적 수준에 만족할 뿐이다. 또 손전화가 체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 당국이 사용 기능을 제한하거나, 다양한 기술·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 손전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인구와 시간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 당국도 국가 경제를 위해 스마트폰을 잘 팔리게 하려면 단순한 통신 기능 외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진 보정이나 날씨 정보, 길 찾기 등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손전화의 선순환적 기능, 즉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의 정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2017년 4월16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꽃 전시회 행사에서 휴대전화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또 과거에 외부 정보의 전달 방법으로 USB와 SD카드 등이 주목을 받았다면, 요즘은 손전화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손전화 안에 다양한 뉴스와 정보, 신앙 서적 등을 넣어 전달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손전화가 크게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 인권 증진 위한 손전화 역할에 관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손전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따른 서비스도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본다. 지금은 음성통화 중심이지만, 소수만 쓰던 콘텐츠를 다른 사람도 쓰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북한의 인권 증진과 민주화를 위해 손전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북한 사회는 손전화의 매력에 푹 빠져 버렸다. 개인 통신 수단으로써 손전화가 북한 사회와 주민의 생활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기능과 활용 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북한 당국이 언제까지 손전화와 외부세계의 연결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 손전화가 큰 잠재력이 있으며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혁을 촉진할 비밀병기로써 손전화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의 대중교통 변화와 이용현황

강 미 진 (데일리NK 북한팀장)

우리나라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글 서두에 쓰는 것은 한국정착 10년 차인 필자의 고향,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에서 강산은 자연을 이르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도 세월과 더불어 변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있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폐쇄적인 환경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외부와의 유입을 막고 내부의 유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은둔의 정치를 해왔던 북한도 최근 ‘국제화, 세계화’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서 현지 소식을 전해오는 주민들에 따르면 10년 전, 아니 5년 전도 옛날이라고 말

할 정도의 변화가 북한에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변화는 필자가 생활했던 10년 전보다 비약했다고 감히 말한다.

북한의 최근 연대들을 내수 경제적으로 접근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 북한의 교통 부문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북한 교통은 마비되어 있거나 침체 혹은 열악한 상태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지금 변화의 바람은 북한에서도 불고 있다. 북한의 교통을 말하자면 대중교통으로 열차가 손꼽힌다. 다음으로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씨비차가 있고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택시도 교통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1>

연대	당시 상황	비고
1990년대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아사자 발생, 국가생산 전면 중단	중앙공급의 배급제도 붕괴
2000년대	7.1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실행, 시장(장마당) 공식 인정	주민 통제 강화, 자력갱생 강조
2010년대	경공업의 부활, 내수 경제 활발, 시장통제 중단, 시장 활성화에 따른 교통수단 증가	전국 건설붐, 세계화, 국산화 정책

북한 교통의 변천사

북한에서는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 경제의 선행관’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북한 교통 이야기에서 90년대에 있었던 경제난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전기로 달리는 열차는 멈춰서다시피 한 상태에 놓였다. 한국 주민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겠지만 수 일 만에 한 번꼴로 운행하는 열차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열차 화장실에도 물건과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고 열차 위에도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다.

이런 모습은 화물자동차로 제공됐던 써비차도 마찬가지다. 고난의 행군 2년 차인 1996년 각 기관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써비차 운행을 시도했다. 써비차 등록은 간단한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차의 점검상태를 도 자동차 검사소에

서 받은 후 지역의 보안서 교통 운수과에 언제 어디로 며칠을 왕복 운행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행증’을 발급받는다. 이때 차주와 돈주라는 말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차주는 기관이나 운전수(운전기사)를 가리키는 말이고 돈주는 화물차에 기름을 대주는 장사꾼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서 이용료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90년대에는 버스 운행도 대부분 정지상태라고 봐야 할 정도로 대중교통 상황이 열악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써비차가 활기를 띠고 내수 경제가 부분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시장과 장사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강행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현상 유지 그 자체였다. 즉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시기가 2000년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대는 북한 전 지역의 다양한 부분에서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변화의 한 부분에 교통 운수 부분도 포



〈평양 등 북한에 운행 중인 다양한 교통수단의 모습. 상당히 발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강미진 기자 제공)〉

함된다. 교통 운수 부분은 다른 분야보다 더 빠르게 발전해왔다고 북한 주민들은 말한다. 어려웠던 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런 교통수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북한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시장에 필요한 물건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려면 열차와 씨비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태에서 교통 부분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2010년대에는 이전 연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북한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실지 필자가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집해오고 있는 내부 소식들에서는 이전의 집단주의에서 개인으로 이동한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교통 부분도 이전보다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내부 정보들은 북한 내부 사진과 일부 영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00년대까지는 기관에서만 화물차를 운영해왔지만, 2010년대에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화물차를 운영할 수 있고 이제는 개인택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100% 개인소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인이 돈을 투자해 화물차를 사서 씨비차 운행을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서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편함에도 북한 주민들은 ‘천지개벽’이라는 말로 현재의 상태를 반기는 모양새다. 이는 집단에 얽매어 조직 생활을 해왔던 환경에서 ‘개인으로 활동하게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주민들의 표현으로 보인다.

북한엔 이동·여행의 자유가 있다? 없다?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은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여행의 자유는 있다고 본다. 이유는 한 개인이 증명서를 발급해서 어디에 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돈을 들여서 택시나 화물차, 혹은 열차를 이용해 명승지나 바닷가를 여행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동의 자유는 현재도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0년대에 북한은 도내에서의 이동주민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만 하는 식으로 증명서 검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에서 단체로 여행 및 답사를 조직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시장경제로 접근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씨비차와 버스 택시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증명서가 있어야 이동이 가능했던 기존 문화를 살짝 누르는 모양새다. 90년대 말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자리 잡게 된 ‘짚러주는 문화’, 즉 뇌물문화로 현재는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그렇다고 증명서 문화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도 증명서 문화는 존재하고있고 해당 보안 기관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한 주민들은 그들대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이전 연대에 비해 달라졌다.

북한의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북한에서 교통수단은 크게 철길을 이용한 교통수단과 육로를 이용한 것, 그리고 물길을 이

용한 교통수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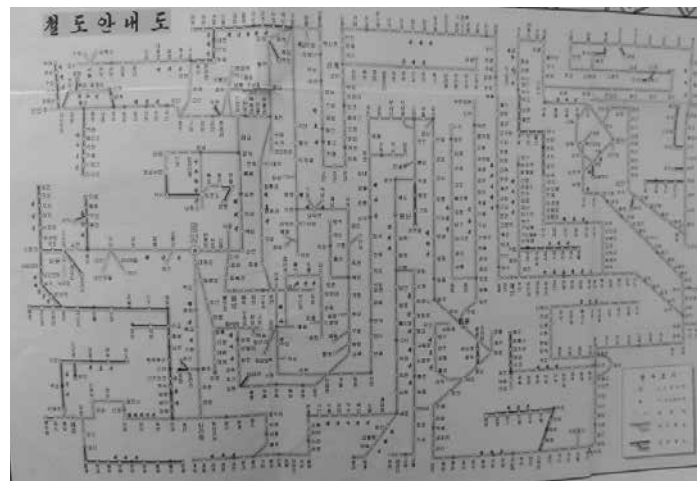
먼저 북한 열차를 본다면, 북한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전력공급이 좋지 않아 열차가 제시간에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하지만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현재는 열차의 운행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게 내부 주민들의 말이다. 북한이 1960년대부터 철도의 전기화를 추진해왔고 현재는 대부분의 열차 노선이 전기화가 되어 있다. 필자가 입수한 북한 철도안내도에 붉게 표시된 부분이 전철이 운행하는 노선이고, 파란색은 지선으로 내연기관과 일부 증기기관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도 있다. 북한의 철도가 전기화가 되었다지만, 노반의 노후화와 전기차의 기술 부족 등으로 현재 일반 열차의 속도는 시속 6km 정도로, 시속 300km로 달리는 우리의 고속열차와는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열차 운행이 뜸했던 2000년대와 달리 현재는 조금의 연착이 있을 뿐 열차 운행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전기화가 완료된 주요 노선은 북한 철도의 중심축인 평의선(평양-신의주), 평라선(평양-나진), 강원선(함경남도 고원-강원도 평강), 해주청년선, 함북선, 강계선, 평북선, 평덕선 등 26개 노선으로 되어 있다.

철길을 이용한 교통수단 중에는 평양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평양 지하철도가 해당된다. 북한의 지하철은 1970년대 초에 첫 개통을 하고 70년대 말에 2단계 공사로 혁신선이 완공되기도 했다. 평양 주민들의 대중교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평양과 일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궤도전차도 철길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되겠다.

다음으로 범위가 큰 육로를 통한 교통수단은 버스와 무궤도 전차, 씨비차 승용차 등 도로를 활용한 교통수단이다. 전기부족으로 열차운행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북한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대폭적인 물가 인상과 급여 인상, 배급제도의 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 파격적인 행보 그 자체였다. 이 시기 전국에서 공설시장이 등장했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장이 확장되면서 상품유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 증가는 필수 요구 조건으로 됐다. 무역 기관은 물론 지방산업 공장들에서도 씨비차를 운행하면서 회사 이윤을 창출하는 한편 국내 교통수요도 해결하고 있는 실태다. 2010년대 북한 당국이 개인소유의 교통수단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필자의 지인 중에 국경 지역에서 택시업을 하



〈북한의 철도 안내도. 대부분의 구간이 전동화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강미진 기자 제공)〉



〈평양 지하철 역(좌)과 열차 내부(우) 모습. (강미진 기자 제공)〉

는 주민들이 몇 있다. 그중 두 명은 양강도 차 사업소의 차로 택시업을 하고 있고 1명은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다. 개인택시업을 하는 이 주민에 따르면 주변에서 친척이나 형제끼리 돈을 모아 택시를 구매해 개인업을 하는 주민들이 해를 넘기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개인택시업도 역시 회사나 기관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택시업을 하는 주민들은 일반 회사원과 달리 회사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차를 등록한 기관에 월수입 중 일부(회사와 계약한 금액)를 내면 된다. 택시뿐만 아니라 소형버스를 운영하는 개인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내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버스에 빼곡하게 서서 이동하던 2000년대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북한 주민들은 말한다.

북한 교통수단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를 통한 교통이용도 무시할 수 없다. 수력발전소를 다수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는 저수지 주변을 찾는 주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물론 육로를 달리는 버스나 써비차, 택시를 탈 수도 있지만, 거리나 요금에 있어서 배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수지와 호수 주변에서는 배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양강도 혜산시 운총리와 상단리 노중리 대봉광산 주민들은 혜산시로 나가는 통로로 배를 이용한다. 저수지가 있는 곳에서는 수십 명이 탑승할 수 있는 큰 배도 있지만 서너 명이 탈 수 있는 개인 쪽배를 가지고 교통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 내에서도 중상층이 등장하게 되면서 개인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단거



〈주야로 운행중인 택시들의 모습 (강미진 기자 제공)〉

리 운송서비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는 주민들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다.

북한 교통 이용 요금 현황

데일리NK가 지난 2월 6일 확인한 데 의하면 현재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환율은 1달러당 북한원으로 평양 8370원, 신의주 8320원, 혜산 8450원, 1위안은 평양 1280원, 신의주 1295원, 혜산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북한 시장에서 달러와 쌀 가격이 대부분 물가의 기준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환율이 변하고 쌀 가격이 변하면 다른 상품들의 가격도 변해왔다. 물가 변동이 심했던 2000년대와 달리 2010년대 북한 시장에서의 물가 변화는 미미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코로나사태 이전 기준으로 북한 시장에서 쌀 1kg에 4700원(북한 원) 정도였다. 이런 기초가격으로 비교해볼 때 북한 주민들의 교통이용료

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전거사랑, 어디까지

북한 내부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성인 탈북민들 99%가 자전거를 이용해본 경험에 있다. 필자가 수집한 내부 사진들에서도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후 2000년대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주민이 생계활동에 이용하게 되면서 매 가정의 생필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열차와 자동차 버스 등보다 이동하는데 비교적 자유롭고 물건을 나르는 데 일등공신으로 인식되어 있어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씨비차 왕복 운임((2017년 3월 기준)

출발	도착	운임(북한원)	한화비교
함경북도 청진	평양시	150만원	20만원
함경북도 청진	평안북도 신의주시	168만원	23만원
함경북도 청진	함경남도 함흥시	106만원	14만원
함경북도 청진	양강도 신파군	117만원	16만원

※ 씨비차 이용 시 한 개 질량 30~50kg 정도의 짐 2개포함한 가격

택시 운임 (조사시기 2018년 4월)

출발	도착	운임	한화비교
양강도 혜산시	함경남도 함흥시	13만원	18,500원
양강도 혜산시	평양시	26만원	37,000원
양강도 혜산시	평안남도 평성시	20만원	27,000원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청진시	13만원	18,500원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길주시	9만원	15,000원

※ 택시를 이용할 경우 마대에 넣은 짐은 실을 수 없다고 함

신앙의 자유를 찾아(12)

●
마리아

감옥 안에서는 쥐와 뱀을 잡아먹는 것이 하나의 보양식이며 특별식이었다. 길이나 밭, 화장실이나 면회 장소, 심지어는 감방 안에서도 쥐가 득실거렸는데 가끔씩 운 좋게 하나 잡으면 그야말로 횡재였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뽑는 등 소정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잡아 먹었다. 쥐든 뱀이든 없어서 못 먹는 판국에 죄수들은 눈에 불을 키고 찾아내었으나 사실상 일반 죄수들이 먹는 것은 불법이어서 숨어서 먹곤 했다. 공식적으로는 허약자들을 대상으로 쥐고기를 삶아주었다.

이 쥐고기가 귀한 선물이 된 일이 있었다. 우리 감방에 오늘로 마흔 세번째 생일을 맞은 여자 죄수가 있었다. 이 죄수의 생일을 어찌 챙겨줄까 궁리하는데 죄수 중 한 명이 쥐를 잡아왔길래 그 쥐고기를 받아서 그 친구에게 선물해줬다. 그 친구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죄수는 쥐의 털을 그슬리고 내장을 뽑아서 공구 수리공에게 그 쥐고기를 넘겼고, 수리공이 그 고기를 물에 삶아 주었다. 밖에서는 쥐고기를 생일 선물로 주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열악한 감옥 안에서는 그만큼 귀한 물건이었다.

나는 출소를 몇 개월 앞두고 감자반에서 벌목반으로 전방(轉房)되었다. 방을 옮기기 전

루디아 선생을 찾아가 손을 잡고 “나는 다른 방으로 가니 보배언니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보배 언니는 여전히 허약자였다. 루디아 선생은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루디아 선생과의 짧다면 짧은 몇 개월 간의 신비한 신앙의 교류는 뒤로하고 나는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갔다.

벌목반은 보통 교도소 출소가 몇 달 남지 않은 죄수들이 배치되었다. 벌목반 생활은 실로 교도소 생활 가운데 가장 곤욕스러웠다. 새로운 감방에서 또다시 신입이 되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산에 올라가 도끼를 이용하여 3미터가 넘는 큰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고는 가지치기를 했다. 작업을 끝낸 나무는 어깨에 끈을 매고 끌어서 산 아래까지 지고 내려와 정렬시키고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하여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했다.

처음 벌목을 하는 날이었다. 다같이 대열을 맞추어 수림이 빼곡한 산등성이에 도착했다. 1조장과 2조장은 서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더니 각각 “좌측으로!”, “우측으로!”라는 구령소리와 함께 조원들이 모두 출격했다. 첫날 내가 받은 도끼는 날도 무디고 자루도 짧은 못쓸 도끼였다.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 일곱 그루를 찍어와야 했다. 경험도 없는 데

다 날도 없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니 손바닥이 다 벗겨지고 피멍이 들었고 나중에는 장갑이 피로 질척거렸다. 나뭇가지가 우거진 깊은 숲이라 도끼로 찍은 나무가 바닥으로 쓰러지지 않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 땅으로 내려오지를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나무통 하나를 넘어뜨려 가지치기를 마치고 내 어깨에 끈으로 연결했다. 이 나무를 질질 끌면서 집합 장소까지 매고 내려가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약해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악을 지르며 나무를 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소리가 아니라 짐승 소리가 났고, 목에서 단내가 나더니 나중에는 쇠비린내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결국 나는 정해진 집합 시간까지 일을 끝내지 못했고, 내가 너무 내려오지 않자 조장이 군인들과 함께 올라와서 나를 찾았다. 그러고는 으레 지각자에게 하던 식으로 총의 개머리판

으로 구타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벌목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어느날, 나무를 찍는다는게 그만 도끼가 나무를 빗겨나가 내 발등을 찍었다. 있는 힘껏 내리친 것에 비해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으나 신발이 찢어지고 발이 부어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고열로 끙끙 앓기 시작했다. 같은 감방 죄수들은 내가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꾀병이라고 여겼다. 반장이라는 여자는 그다음날 영락없이 출근해야한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기는 발뒤축을 도끼로 찍었어도 출근했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큰소리를 쳤다. 그래도 내 옆의 앓은 죄수는 나에게 찬물 찜질을 해주며 안타까워했다.

자기 몸집에 몇 배나 되는 나무를 찍고, 넘



어뜨리고, 옮기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벌목반의 죄수들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몇 달만 있으면 곧 출소할 사람들을 모아놓은 벌목반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죽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강했지만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한 영양을 챙기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이었다. 꺼끌꺼끌한 옥수수 껍데기가 끼니랍시고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다. 영양가가 하나도 없기에 소화가 안되고 다 변으로 나왔다. 영양실조는 이미 만연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어떤 죄수는 움이 난 곳에 발라서 치료하기 위해 모아둔 유향가루와 돼지기름을 정신없이 먹어대더니 그 부작용으로 미친개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그 죄수는 자기가 먹는 것이 독약인 줄 알면서도 ‘설마 이걸 먹고 죽겠냐’라는 심정으로 배를 채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수가 왜 그러는지 정황을 몰라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고, 그 죄수는 그렇게 펄떡펄떡 뛰다가 생을 마감했다. 진작에 위세척을 했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을텐데...

벌목반에 있을 때는 직접 시체도 옮겨봤다. 한번은 같은 감방 조원이 죽었는데, 그 조원은 생전에 평평이 떡을 실컷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던 사람이었다. 또 다른 죄수는 자기 아기를 중국에 두고 왔는데 죽기 전에 그 아이를 한번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야위어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았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렇게 무거워질 수가 없다. 나와 또 다른 죄수 두 명에서 시체 하나를 날라서 옮

겨놓는데 너무나 무거웠고 너무나 무서웠다.

어느 날은 벌목을 하러 대열을 맞추러 걸어가는데 멀리서부터 시체를 담은 수레가 오는 것이 보였다. 교관이 “뒤로 돌앗! 머리 숙여!”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리는 호기심에 슬쩍 슬쩍 뒤를 돌아보았고 나는 급기야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교화소에서는 사람이 죽어 시체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거진 한 톤 분량정도 되는 수레가 다 찰 때까지 교화소 한 구석에 방치해두었다가 산으로 옮긴다. 그래서 교화소에는 겨울에 죽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방치된 시체들이 끔찍 얼어 그나마 온전한 몸동아리를 보존하지만 여름에는 오래된 것부터 부패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체를 태우는 가마니는 크기가 크지 않아 도끼로 시체를 재단하여 넣고 태운다. 마지막에 남은 뼈들은 ‘불망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버린다. 이곳 죄수들은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일년 열두달 눈비를 맞는다. 교화소 인근 날씨가 순간적으로 바뀔 때면 흔히들 불망산이 노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무시무시한 교화소에서 나는 ‘무조건 살아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 벌목반에서도 특출나게 열심히 일하여 1조장으로 뽑혔다. 벌목반 안에는 두 개의 조가 있고 한 조당 인원이 약 20여명 정도였다. 그렇게 보통 크지 않은 집 거실만한 작은 감방에 5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지냈다. 조장은 감방을 관리하고 대열을 인솔하는 일을 하는 ‘탁자리(탁구공이 공중에 뜨는 식의 출세한 자리)’였

다. 하지만 내가 있을 적에 대대로 내려왔던 벌목반 조장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곧 출소를 앞둔 사람들의 방이라 그런지 죄수들의 시기와 질투가 대단하여 잦은 고발과 해코지로 결국에는 조원들이 조장을 궁지에 몰았고, 많은 조장들이 매를 맞고 더 많은 벌목 일감을 받는 등의 처벌을 당했다. 이런 사태를 내 눈으로 이미 두 번이나 보았으니 조장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다. 나는 담당 형사를 찾아가 형사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다.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1조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저는 여기서 출소할 때까지 제대로 1조장 역할을 수행하고 교화소 문을 나서고 싶습니다”고 간청했다. 담당 형사는 나의 태도를 좋게 보았던지 눈에 띄지 않게 이것 저것 마음을 써 줬다.

벌목을 하러 산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1조장과 2조장이 산의 모양을 파악하고 조원들을 이끌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산세를 빨리 파악해서 나무가 굵고 많은 곳으로 자기조를 인도해야지만이 그 아래 조원들이 단위 시간동안 나무를 작업해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조장들 간의 견제가 심했다. 내가 1조장을 했을 때 2조장을 하던 사람은 이미 10개월을 벌목반에서 지낸지라 산세를 파악하는 요령이 있었고 노련한 친구였다. 반면 나는 아직까지 산세를 파악하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모자랐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침에 조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 담당

형사가 대뜸 “야! 1조 여기 붙으라!” 하는 식으로 넌지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1조가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보내졌다. 자연스럽게 우리 조원들이 매 맞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나는 조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었다. 일찍이 담당 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먹을 것이 언제나 부족했던 교화소 생활을 버티기 위해 죄수들은 시도때도 없이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곤 했는데 벌목반도 예외는 아니었다. 벌목반의 장점은 봄에는 두릅을 따먹고 여름에는 버섯을 따먹는 등 산 곳곳을 누비며 식용 작물을 그나마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조원 몇몇이 나무를 하면서 개암버섯을 따왔다. 원래 개암버섯은 독 때문에 생으로는 먹을 수 없고 조리하여 먹어야하지만 우리는 오랜만에 생긴 별식이 반가워 그저 단지밥에 소금을 찍어서 조금씩 나누어먹었다. 그러나 몇 분 후, 면역력이 원래 약했던 나는 개암버섯의 독기가 올라와 쓰러졌고, 구토와 설사로 사경을 헤맸다. 그 순간 조원 중 한 명이 ‘백학치약’¹을 꺼내어 입에 절반을 짜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곧 구토와 설사가 멈추었고 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완화가 되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북한의 꽃제비들은 그 백학치약을 하나씩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변질된 음식을 주워먹고 탈이 났을 때 짜먹었다고 한다. 다른

1 ‘백학’은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치약의 상표이다.



〈북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치약들. 가장 왼쪽에 백학 치약의 상표가 보인다. (테일리 NK)〉

치약은 안되고 그 백학치약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성분 덕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정말이지 교화소에서의 생활은 사활을 다투는 전장이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갇은 고초에 시달렸던 그 시간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었다. 특히 마지막 벌목반은 매일 생활총화를 시켰는데 이것이 큰 고역이었다. 고된 하루 일과도 이미 너무 피로한데 하루 생활 중에 조금이나마 트집 잡힐 일이 있었으면 무수히 쏟아지는 비판

속에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압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고비고비마다 함께하시고 도우신 주님의 은혜로 때마다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도구, 방법을 예비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지금 자유롭게 안정 가운데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 미국, 14개월만에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 2004년 이후 총 219명.

근래 미국의 탈북자 난민 수용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갱신한 난민 입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 단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는 데 그쳤다.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미국 중서부 미시건주에 정착한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2004년 10월 최초로 제정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에 따라 미국이 수용한 탈북 난민의 수는 현재까지 총 219명이다. 이들은 미국 내 20개 주에 정착했고, 가장 많은 탈북자가 정착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31명), 캔터키 주(28명), 일리노이 주(21명) 순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고,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당시 4년 간 한시적인 법으로 제정됐지만,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7월 또 다시 2022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2007년에 28명, 2008년에 38명, 2009년 18명 등 2016년까지 해마다 최소 14명에서 최대 38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7년에 한 명, 2018년에 6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는데 그쳤고 지난해에는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미국에



〈지난 2006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

정착한 탈북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7년 1월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월 시작된 2018 회계연도에 최대 난민 수용 인원을 전년도 오바마 행정부의 11만 6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였고, 2019 회계연도에는 3만 명으로 재차 축소했다.

+ 유엔 "북, 핵·미사일 활동 지속...석탄 수출·사치품 수입 여전"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작년 4천억원어치 넘게 수출하고, 석유제품·사치품 등에 대한 수입도 여전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 지난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계속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이 입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으며 이는 3억7천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80만 톤 상당의 석탄은

북한 국적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방식으로 수출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바지선에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浙江)성 항저우만(杭州灣)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소 100만 톤의 하천 준설 토사도 중국 항구로 수출했으며, 이는 2천200만 달러 상당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유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수입했다고 밝혔다.

Figure VI: Ships of unknown nationality conducting ship-to-ship transfers with the tanker *An San 1* over two consecutive days



Source: Member State

〈동중국해에서 북한이 석유제품을 불법환적하는 모습.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수출뿐 아니라 석유제품과 고급 자동차, 술 등 사치품에 대한 불법적 수입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주로 제3자 중개인들을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국제적인 은행 채널에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법적인 석탄·석유제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그밖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께 채택된다.

이와 관련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유출로 중국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반발했다. 중국대표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완전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은 줄곧 국제적 의무를 다했고 제재를 이행하면서 큰 손실과 압력도

받았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대화 국면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지역의 영구적인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월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의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워싱턴DC에서 '선박 등록 관리 및 준수 표준 심포지엄'(Ship Registry Management and Compliance Standards Symposium)을 개최했으며 국제 선박등록 기관과 선급협회, 해외 정부 관계자 등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여전히 미국의 중대한 대외정책 우려 사항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재원 조달을 차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미국 국무부의 이번 회의 개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참고: 연합뉴스, 2월 11, 12일)

+ 북한, 코로나 방역 총력, 입국자 격리기간 30일로 연장



〈중국과 맞닿은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보건 부문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닫은 북한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전면 통제해 북한은 대규모 방역 인력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국영 매체를 통해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들을 상당히 신속하게 미디어를 통해 보도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관련 증상과 감염 경로와 함께 "나라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소독 비누개발을 선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국 내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가 밀집한 평양 문수거리 외교단 지역을 비롯하여 사실상 '외출금지'를 포함한 초강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초기에는 15일 격리 후에 입국이 허용되었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30일로 연장되었다. 전국적으로 격리된 외국인은 38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 등을 위해 방북한 사람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2월 21일 이후 남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 대해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박명수 국가위생검열원 원장은 2월 23일 조선중앙TV 인터뷰에서 “주변국에서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전파 경로가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며 “주변 나라들에서 이 병 발생 실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빈틈이 없는가를 구석구석 따져보고 해당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로 강조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역 수위 역시 강화되었다. 노동신문은 2월 23일 '수입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을 엄격히 하자' 제목의 기사에서 "무역항과 국경교두(다리)로 들어오는 물자들을 먼저 반입 지점의 격폐된 장소들에 무조건 열흘 동안 자연 상태에서 방치해두고 소독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물자를 인계하는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자들을 소독할 때는 포장 용기뿐 아니라 포장 용기 안에 있는 물자들의 구석구석까지 말끔히 소독하여 자그마한 빈틈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발병자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코로나 발병에 취약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청진시의 한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들을 병원에서 서둘러 화장하고 병원전체를 소독하는 등 방역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내 코로나 의심 사례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에 개인 보호장비와 진단키트 등 인도적 물품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용품과 장비 지원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2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 주민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취약성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적 원조, 보건기구의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관련 기구들의 지원에 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북한 주민 중 2명중 1명은 사경제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세 끼 식사



북한에서 시장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주민 2명 중 1명은 '사경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연구학회와 (주)현대리서치연구소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북한 경제사회 실태연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통일부 의뢰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사경제 전업 종사자'와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이들 두 가지 형태의 '사경제 종사자' 비중은 2006~2010년 34.1%로 처음으로 '국영경제 종사자'(28.5%)를 추월한데 이어 2016~2019년 48%까지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은 24%로 쪼그라들었다.

'종합시장' 매대 상인 경험자들은 최근 북한의 시장 규모에 대해 '탈북 10년 전에 비해 매우 커졌다'(25.8%), '조금 커졌다'(30.1%)고 답해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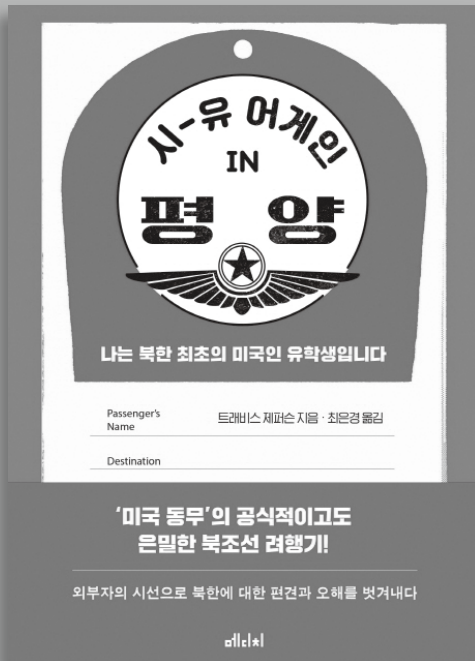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도 2000년 이후 지속해서 향상됐다. '1일 3회 식사를 한다'는 응답률은 2000년 이전 32.1%에 불과했지만, 2001~2005년 52.2%, 2006~2010년 67.1%, 2016~2019년 90.7%로 상승했다. 주식의 구성 비율도 과거에는 강냉이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객열차 이용률은 2011~2015년 28.9%에서 최근 4년(2016~2019년)간 38.9%로 회복됐다.

휴대전화 이용률은 2000년 이전 0.5%로 매우 미미했다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해 2016~2019년 41%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통화 목적은 주로 개인장사(41.5%)와 안부(32.6%)였고, 정보교환(8.6%)과 공식업무(3.8%) 목적은 낮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설문 대상이 된 탈북민에 대해 "작년에만 600여 명을 조사했고, 2013년부터 축적된 데이터까지 포함해 통합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설문 대상자는 약 6천 명이다. 양 교수는 다만 "조사 대상자들은 성별·지역 등의 편중성을 보이므로 북한 사회 전체의 특성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월 13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시 유 어게인 in 평양 -
나는 북한 최초의 미국인 유학생입니다.

저자: 트레비스 제퍼슨

출판사: 메디치

발행일: 2019년 5월 27일

가격: 16,200원

북한은 오랜 기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알려지지 않은, 닫혀진 국가로 손꼽혔다. 근래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입국하고 북한에 대한 증언과 경험들이 글과 강연 등으로 정리되면서 북한 체제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뉘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나 경험기가 계속해서 출판되고 상당히 관심을 끄는데, 이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절대적인 정보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인이라는 제 3자의 눈으로 본 북한의 모습은 어떠할지 웬지 더욱 흥미를 자아내는 측면도 있고, 좀 더 객관적인 해석이나 새로운 관점의 북한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듯하다.

오늘 소개하는 책, “시 유 어게인 in 평양”은 소설가이자 시인, 평론가인 미국인 트레비스 제퍼슨이 한달 동안 북한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평양을 묘사한 책이다. 사실 이러한 외국인 북한 방문기로는 기간이 짧긴 하지만 책은 상당히 두텁고 역사적 배경이나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평소에도 북한을 짧게나마 자주 방문했었고 중국 상하이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친숙함과 관심이 있다 보니 짧은 기간의 방문기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묘사와 내용을 담은 책이 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서구 사회의 북한에 대한 묘사는 비이성적이고 편향되어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신의 경험이 서구 사회의 고정관념을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책 안에서 저자는 북한을 무리하게 미화하거나 북한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긍정론을 펼치는 내용은 아니다. 외국인으로서 경험하거나 보고 들었던 북한 사회의 극심한 통제와 심리적 압박, 경직된 사회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북한의 자유 없음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재 사회의 억압과 전체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그 사회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흥 자본가들과 평양 특권층의 생활방식에 대해서도 잘 묘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점은 체류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저자가 느낀 고독감과 외로움이다. 저자는 자신이 북한에서 꼬박 한 달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주는 압박감을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한다. 북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또 혼자 있을 때라도 오히려 누군가 엿보거나 엿듣고 있는 듯한 오싹한 기분을 느끼면서 도시의 밤거리를 볼 때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공포의 감정을 저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곳에서 혼자였던 적이 한번도 없었음에도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저자는 극도의 감시 사회에서 느꼈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드러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는 자유롭게 생활했지만 그럼에도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것 같다. 또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북한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하고 바깥세상과의 단절에 익숙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는 묘사나,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는지, 또 체제 안에서 공유되는 감정과 동질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결국 사람의 통일을 이뤄가야 할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보았다. 아마도 북한의 악한 모습이나 단점을 단순하게 비난하고 조롱하기 보다는 왜 이런 사회와 통치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 증진이라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의 북한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대체적으로 큰 오류는 없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묘사로 인한 디테일의 한계가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라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한반도의 역사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또 곱씹기식 지식이 아닌 진지한 태도로 북한을 이해해보고자 애쓴 저자의 노력도 느낄 수 있다. 특히 남한 및 서구 미디어의 편견 가운데 북한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보도되거나 탈북자들을 왜곡되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그렇지만 안타까움이 담긴 묘사는 진지한 고민과 이해의 대상이 아닌 흥미거리로 소모되는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한 연민과 함께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평양을 중심으로 제한된 사람들, 제한된 장소에 대한 뻔한 기록일 것이라는 생각에 별 기대가 없었다. 하지만 책을 내려놓으면서 북한과 북한 사람을 이해해보고자 한 저자의 노력이 느껴지는 상당히 공들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북한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중서적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문서로서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부담 없이 읽어 볼만한 책으로 권해본다.

북한 기도 제목

1.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도 그 여파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초기 서부터 국경을 걸어잠그고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애쓰고 있지만 많은 기관들이 북한의 상태를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악한 북한의 의료 보건 실태를 생각해볼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입게 될 피해와 인명손실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퍼지는 일이 없도록, 지하의 성도들과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북한을 향한 복음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인적-물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관련해서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북한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선교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의 기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본 선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며 특별히 고난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헌신된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3.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가 선교현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 3국에 거주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퍼져가는 전염병 속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또한 그 땅에서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 3국 북한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십시오.
4.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강화되는 국경통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지는 와중이지만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절실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역이 안전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겨울을 맞아 전달한 각종 방한용품 및 생필품들이 안전하게 잘 전달되고 활용되어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십시오.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 및 탈북 성도들이 참여하는 자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도어의 라디오 복음을 통해 그 땅에 한줄기 빛과 같은 주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인권 존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0년 발표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무고한 박해가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6. 한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4월에 치를 총선으로 인한 긴장과 대립도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교회가 사회에 대안과 위로를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인해 예배와 모임의 제약이 심해지는 이때에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또 성도 개개인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북한의 변화 가운데 인도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비전을 더 깊이 품고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현장 사역을 위해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3월 1일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드와치리스트 2020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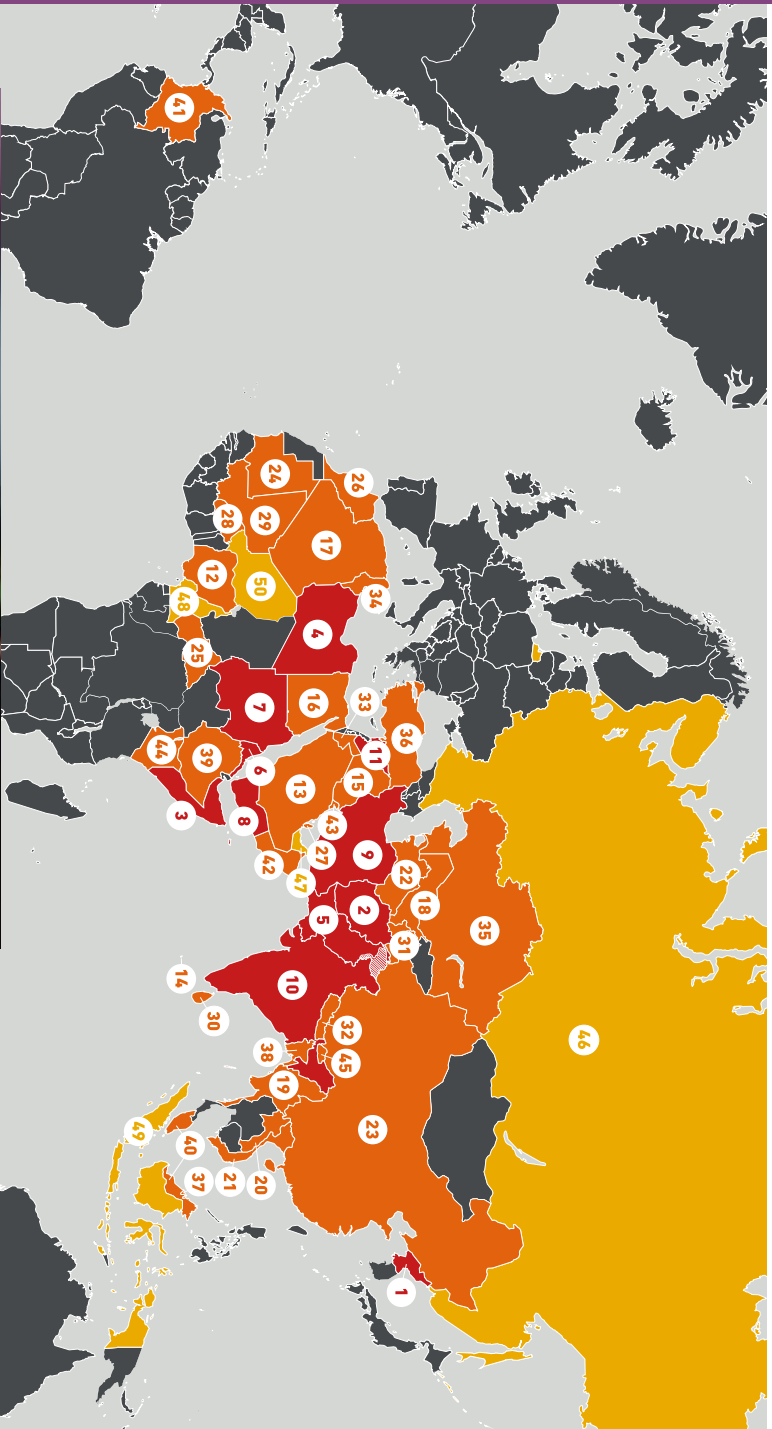
- | | |
|--------------|----------------|
| 1 북한 | 28 모로코 |
| 2 아프가니스탄 | 29 카타르 |
| 3 소말리아 | 30 부르키나파소 |
| 4 리비아 | 31 말리 |
| 5 파키스탄 | 32 스리랑카 |
| 6 에리트레아 | 33 터키 |
| 7 수단 | 34 케냐 |
| 8 예멘 | 35 오만 |
| 9 이란 | 36 튀니지 |
| 10 인도 | 37 카자흐스탄 |
| 11 시리아 | 38 터키 |
| 12 니자리아 | 39 브라질 |
| 13 사우디아라비아 | 40 방글라데시 |
| 14 콜롬비아 | 41 에티오피아 |
| 15 이라크 | 42 말레이시아 |
| 16 아랍트 | 43 쿠웨이트 |
| 17 알제리 | 44 오만 |
| 18 우즈베키스탄 | 45 케냐 |
| 19 미얀마 | 46 라오스 |
| 20 라오스 | 47 러시아연방 |
| 21 베트남 | 48 아랍에미리트(UAE) |
| 22 투르크메니스탄 | 49 카메룬 |
| 23 중국 | 50 인도네시아 |
| 24 모리타니아 | 51 니제르 |
|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박해 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찬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해마다 발표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연구자들이 10개 국가의 원정으로 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점수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복원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개인과 교회로 사회 생활 기타에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기준들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I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크리스찬회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라메쉬는 스리랑카 마타칼로이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자살폭탄테러범이 시온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자기해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회는 말합니다.

“자신이 발명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것을 사랑 하신다 하셔서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회와 또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타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피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예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